

21세기 재중 동포의 언어 전망

이득춘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20세기 전반에 걸쳐 민족의 말과 글을 굳게 지켜 온 영광을 지니고 있는 재중 동포들의 언어 생활은 21세기 새천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는 우리들이 세기의 교차점에서 꼭 진맥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20세기 말엽 개혁과 개방의 세계적 조류 속에서 재중 동포 사회, 다시 말해서 중국 조선족 사회는 여러 면에서 전례 없는 발전을 하였다. 국제적으로는 냉전 시기가 결속되던 좋은 시기에 진행된 중국의 개혁과 개방은 중국 대지에서 대량의 인구가 국내외로 이동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화(都市化)의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게 하였다. 이는 20세기 말엽의 중국 사회에서 아주 보편화한 현상이었다. 재중 동포들은 이러한 시대의 물결 속에 다른 소수민족보다 비교적 일찍 뛰어들었다. 일부 언론 매체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만주 지방에서 산해관 이남 지방으로 이주하여 제1산업과 제2산업에 종사하는 조선족 인구는 이미 20만에 이르렀으며 한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일본, 미국, 캐나다 등 나라에 노무로 나갔거나 상업 목적으로 나간 사람이 5만 명에 달하였다. 이 외 한반도와 기타 지역에 결혼하여 나간 여성이 2만을 넘고 있다. 이동된 인구는 이미 재중 동포-조선족 인구의 10%를 넘고 있다.¹⁾(여기에는 만주지방 내부에서 도시로 이동한 인구는 포함하지 않았다.)

인구 이동은 재중 동포들로 하여금 구식 전통적인 소농(小農) 경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농촌의 남아도는 노동력을 분류시킬 수 있었고 점차적으로 농업 생산의 규모적 경영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단일하게 농업 경제에만 매달려 살던 국면에 대한 타개책을 내놓을 수 있었으며 동포 자신의 민족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농적 농경 경제로부터 해탈됨으로써 동포 사회의 발전을 내밀 수 있었으며 백성의 수입을 늘이고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놀 수 있었다. 이와 아울러 인구 이동은 동포 인구가 새로 유입되어 간 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였다.

20세기 말엽에 재중 동포 사회에서 일어난 인구 이동은 위에서와 같은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인구 이동은 동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도 흘시할 수 없는 일이다. 월강 민족인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제3대, 제4대에 이르러 한글과 한국어를 숙달하고 응용하는 정도가 제1대나 제2대에 비해서 확연히 못하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0만 동포 중에서 민족어를 숙달하고 있는 사람은 대략 70%뿐이라고 한다. 산거(散居)지역에서는 50%정도밖에 안 되며 대도시나 중등 도시에서는 그 비례가 더욱 적다고 한다. 겨레 학교가 없는 대중 도시의 대다수 청소년들은 민족 언어와 문자를 모르거나 기본적으로 모른다고 한다.²⁾

20세기 1990년대 이래로 동포 인구는 여러 가지 인소의 작용에 의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향촌 인구가 대량 도시에 유입하고 농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대세의 흐름 속에서 상당수의 향촌 학교는 학생이 줄어들어 학교를 꾸리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만주 농촌의 수많은 동포 학령기 어린이들로 하여금 한글과 한국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흑룡강성에서는 1990년도에만도 382개소의 소학교(국민학

1) 金鐘國 「對中國朝鮮族的反思及展望」, 『延邊大學學報』(哲學版), 1999年 第3期.

2) 앞글.

교)와 77개소의 중학교가 있었었는데 1997년에 이르러 소학교는 256개소, 중학교는 43개소만 남게 되었다. 그 감소율은 각각 33%와 44%이다. 연변조선족 자치주에는 1993년에 조선족 보통중학 101개소, 조선족 소학교 337개소가 있었었는데 1998년에 이르러서는 중학교는 82개소로 줄어들고 소학교는 229개소로 줄어들었다. 중학교 감소율은 23.17%, 소학교 감소율은 47.16%이다. 소학교 재교생은 1993년의 83,898명으로부터 1998년의 72,624명으로 줄었는데 그 감소율은 15.52%이다.³⁾ 산해관 이남으로 부모를 따라 유동한 학령기 어린이들은 유입 지구의 중국인 학교에 가야 하므로 한글이나 한국어와는 격리된 상태에 있게 된다.

이상의 현상들은 민족 교육에 나타난 새로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출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냉전 시기의 계획 경제로부터 개혁 시기의 시장 경제로 이전하려면 필연적으로 이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것이야말로 사회 발전 법칙에 맞는 일이기 때문이다.

세기 교체 시기의 이러한 현실은 21세기에 도 일정한 기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민족 언어 문자 사용은 일정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며 민족 어문정책의 이행은 20세기 1950년대나 20세기 1980년대처럼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동포 사회 내부의 부분적 사람들은 한글과 한국어의 중국에서의 전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실망할 수 있으며 마치 우리말과 글이 다시 몇 십 년을 지나면 만주 대륙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의심할 수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월강 이후 끈질기게 고스란히 말과 글을 지켜 온 중국 조선족 동포의 역사 전통과 어울리지 않을 것이며 목숨을 걸고 말과 글을 간직해 온 선열들에게 부끄러운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현실을 정시하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 속에서 햇빛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절대로 실망을 앞세

3) 鄭信哲. 「中國朝鮮族人口流動的重大影向及其對策」. 『延邊大學學報』(哲學版), 1999年 第3期.

김광세, 왕동양. 「보통 중·소학교 상황 및 인구 발전 전략」. 『연변일보』 1999년 11월 6일 제3면.

을 필요는 더욱 없다.

생각하건대 21세기에 한국어만으로 단일어를 사용하는 인수는 20세기에 비하여 줄어들고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 인수는 좀 늘어날 수 있겠으나 동포 취거(聚居)지구 그리고 산거(散居)지구에서 한중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인수는 급격히 증가될 것이다. 예상컨대 단일어 사용자와 이중언어 사용자를 합한 수는 의연히 동포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는 약간 시기의 일정한 정책적 조절과 자연적인 안정을 거치기만 하면 중국 대지에서 상당히 오랜 역사 시기(이 시기는 본 세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내에는 대 면적의 언어전용(言語轉用)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시장 경제에로의 이전과 인구 유동 중에서 나타난 새로운 문제점들은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문제이지 결코 조선족 동포들에게서만 생긴 것이 아니다. 다만 조선족 동포가 다른 소수 민족보다 먼저 앞섰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문제점들은 하나 하나 타당하게 해결을 볼 것이다. 우리는 중국 정부의 개혁, 개방 노선이 최종적으로 한국어와 한글의 사용에 새로운 출로를 열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기필코 우리의 민족을 위해 새로운 발전 모식(模式)을 창조해 줄 것이라 확신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정부와 학부모들의 협력으로 학교 구도가 조절된 사실이 이것을 입증하며 21세기 초에 이미 온당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연변자치주에서는 이미 133개소의 향촌 소학교와 4개소의 초급중학, 13개소의 고급중학과 교수점을 합병했거나 조절하여 위기에 처해 있던 학교들을 온당하게 자리잡게 하였다.⁴⁾

언어와 문자는 민족의 중요한 표징이며 민족의 상징이므로 언어 문자의 사용 여부는 인류가 생존, 발전하는 전 과정에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의의와 정치적 의의를 갖게 된다. 언어 문자의 역할을 근근이 의사 소통 도구라는 데에만 국한시켜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4) 『연변일보』, 1998년 11월 12일 제3면, 「돌아보는 10년」.

오늘의 역사적인 시점에서 21세기 중국 동포 사회의 언어 문자 생활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개혁 개방과 시장 경제의 물결 속에서 세계화의 대세에 맞추어 지난 20세기에서와 같이 한글과 한국어를 지켜 나가는 가 하는 것이 하나의 가능성이라면 제 자리에 담보하면서 지난날의 특점을 상실해가는 것이 또 하나의 가능성이다. 이러한 시대의 전환점에 놓여진 두 가지 전경(前景) 중에서 우리는 반드시 첫째를 택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중국 대지에 펼쳐진 유리한 정세와 한반도의 언어와 일치를 가져올 수 있는 시대적 특점을 우리 자신의 앞길에 잘 이용하는 것이다. 시세의 조류를 알고 민족 경제의 전면적인 진흥을 이룩함으로써 민족 경제를 뒷받침하여 동포 사회 공동체를 잘 건설하여야 한다. 재래의 학교 구도를 계속 조절하고 새 형의 학교를 설립하여 겨래의 언어 문자 교육을 강화함과 아울러 중한 이중언어 교육을 중시하여 중한 두 언어를 겸통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동포 민중의 저력을 과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언어 문자의 보존과 발전을 담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망은 빈말로써가 아니라 동포 사회 모든 현장에서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은 꼭 실현될 수 있는바 한국어 자체가 중국 동포 사회에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우세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 한국어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비롯한 크고 작은 자치 구역 그리고 기타 집거 지역으로 구성된 언어 사용 중심지를 갖고 있는 바 이러한 지구는 지난 날 중국에서의 동포 언어 문자 사업의 발상지였다면 앞으로도 의연히 동포 언어 문자의 보존과 발전의 중심지로 되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다.

언어란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으며 언어 사용자는 자기의 언어 사용 기지를 가져야 한다. 이 면에서 첫째 조건은 자못 중요하다.

둘째, 한국어는 중국에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을 갖고 있다. 조선족은 일제 치하에서 피눈물의 투쟁으로 이룩한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지니고 있기에 중국 당과 정부의 따뜻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정부에 대한 크나큰 구심력을 갖고 있기에 상응한 보호를 받고 있다. 동포들은 높은

정치적 각성과 민족적 자아의식으로 중국 사회에 뿔뿔이 발붙이고 있다. 이는 한국어의 생존에 유리한 연성 조건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21세기에 넘어선 현실에도 어문 규범 사업과 한국어 보급 사업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여러 행정 부서와 행정 인원들이 예전과 변함없이 그대로 있으며 중국 내 한글 출판 기관, 언론 매체, 교육 기관과 연구 기관이 계속 작동되고 있다. 동포 교육의 현장에서는 외국어와 중국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가 의연히 한글로 되어 있으며 모든 교과목을 한국어로 가르치며 중학교와 소학교에서는 의연히 민족 문자-한글 교육을 앞자리에 놓고 있다. 전반 새천년에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어도 이러한 국면은 총체적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

셋째,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중국 정부의 소수 민족 정책은 한국어의 생존에 유리하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르면 사회주의 시기에는 언어의 융합을 제창하지 않는다. 더욱이 목전에서와 앞으로의 상당히 긴 역사 시기 내에 중국은 그냥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처해 있을 것이므로 여러 언어의 융합을 제창할 이유는 전혀 없다. 언어 융합은 인류의 언어 발전에서의 총체적인 추세일 뿐이지 결코 최종적으로 하나의 언어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레닌은 『민족 문제에 관한 비판 의견』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누가 만약 민족 평등과 언어 평등을 승인하지 않거나 견지하지 않고 각종 민족 압박 혹은 민족 불평등과 투쟁하지 않는다면 그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닐 것이며 심지어 민주주의자도 아닐 것이다.”⁵⁾

모택동 주석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소수 민족의 문화, 종교, 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소수 민족더러 한문과 중국어를 배우라고 강박하지 말아야 할 뿐더러 마땅히 여러 민족들 자체의 언어 문자로 문화 교육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⁶⁾

마르크스주의, 모택동 사상 그리고 등소평 이론은 모두 다 한결같이 민족

5) 「關於民族問題的批評意見」, 『列寧全集』第20卷 第11頁, 人民出版社, 1958年.

6) 「進一步貫徹民族區域自治的政策」, 『人民日報』1953年 9月 9日 社論.

어문정책은 민족 평등에 입각하여야 하며, 민족 교육과 민족 언어 문자를 발전시키는 데서 체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중국의 헌법, 구역 자치법 그리고 의무 교육법, 연변 자치주의 「어문사업 조례」, 「교육 조례」와 같은 법규는 정부의 민족 정책이 보증을 받고 더욱 완속해지게 하였다.

전 중국적으로 보면 조선족의 한글과 한국어는 그 사용 면에서 중국어에 비해 약세에 처한다. 이에 따라 한글을 경시하거나 홀시하는 경향이 이따금 생길 수 있다. 우리는 정부를 도와 수시로 이런 현상을 규죄하며 시종일관 마르크스 민족관으로써 한글과 한국어 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한국어와 같이 비교적 많은 언어 사용자가 있고 또 사용 지구가 있는 언어는 전 민족적으로 혹은 민족의 대다수 성원이 모어를 포기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른바 전 민족적 언어 전용(言語轉用) 문제가 생길 수 없다.

목전 경제 변혁 시기에 일부 사람들은 경제 발전에만 많은 주의력을 돌리고 또 사회적으로 많이 유통되는 언어를 따르게 되어 본 민족 지구의 경제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이런 현상도 잇따라 시정될 수 있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점은 지금 비록 언어 문자 사용에 불온당 국면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모종의 의미에서 민족 자아 의식은 감퇴되지 않고 증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어는 조선족 동포의 정신 생활에 깊은 뿌리가 내려지고 있다. 간단없이 증장되고 있는 민족 자아 의식이 있으므로 하여 민족 경제와 생활 수준이 소요의 목표에 이르렀을 때 언어 사용의 불온당 국면은 어느 정도 풀릴 것이다. 이에 따라 자기 민족 언어에 대한 감정도 다시 깊어져 언어 선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인바 중국어만을 전용하던 부분적 인사들은 본체 언어에 대한 회귀를 할 것이다. 이런 언어 사용에 나타나는 회귀 현상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넷째, 조선족 동포의 언어와 문자는 양호한 주변 환경을 갖고 있다. 중국 동포의 대부분은 중중 변경 연강 지구에 거주한다. 이 곳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 두고 한반도와 접경하였다. 그 중 연변 지구는 중국, 조선, 러시아 세 나라의 '금삼각(金三角)' 지구에 속한다. 20세기 1990년대의 중한 수교의

실현, 대 러시아 관계의 개선, 중조 사이의 전통적 친선은 중국 동포와 국제 동포 사회와의 교류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여 주었다. 중국 조선족 동포의 언어 문자 사용은 경외의 동포 언어 문자 사용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중국 조선족은 월강민족(跨江民族)으로서 강을 사이 두고 경외의 동일 민족과 각종 관계를 이룬다. 이는 밀어버릴 수 없는 현실 문제이다. 중국 정부는 독립 자주, 선린우호(善隣友好)의 외교정책으로 이러한 관계를 자국 건설에 이용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교류와 접촉 가운데서 이룩된다. 서로 간의 교류와 접촉에서 한국어와 한글은 제1차적으로 수요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중국 동포의 언어는 한반도와 동시성[同歩的] 발전을 하게 된다. 절대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각자가 이질적 언어로 되지 않을 것이다. 언어적 환경, 지리적 환경 그리고 역사적 연혁 등 어느 면으로 보아도 조선족 동포의 언어, 문자의 생존 여부는 주변 국가 특히는 한반도의 언어, 문자와 천사만루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는 중국의 내륙 소수 민족에게는 있을 수 없는 특점인 바 이러한 특성은 중국에서의 한국어의 발전에 아주 이롭다.

최근 연간 한국어로 시집 간 중국 동포 여성이 몇 만 명을 헤아린다고 한다. 원래의 친척 관계에 새로운 인척 관계가 더하여져 중국 동포와 한국과의 연계는 전례없이 빈번하다. 이 역시 장기적으로 두 나라 사이에서 한국어와 한글이 유통될 수 있는 공통적인 '토양'이라고 보게 된다.

위에서 말한 네 가지는 한국어가 중국에서 보존되고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다. 물론 본 문장의 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말에 동포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과 인구 유동 등 원인으로 해서 일부의 굴곡적인 현상이 나타나 동포들의 언어생활을 쇠약화시켰지만 이로 인해서 21세기 지식기반 시대에 중국에서의 동포 언어의 소실을 불러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향촌 교육이 위기에 잠시 처했던 시기에도 연변 대소 도시의 동포 학교 학생수는 오히려 급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1989년 연변의 도시에 동포 중학이 41개소, 동포 소학이 46개소가 있었는데 1995년에 이르러 중학교 수는 증감이 없으나 소학교는 57개소로 늘어났다. 연변 도시 중한(中韓)민족

연합학교는 1989년의 중학교 18개소, 소학교 13개소로부터 1995년에 이르러 중학교는 25개소로, 소학교는 26개소로 증가하였다. 매 학교마다 학급수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1993년부터 1998년 사이 연변 농촌 중학교 재교생은 2,590명이 감소되었지만 도시의 중학교 재교생은 7,101명으로 증가되었다. 증가율은 2.74배이다.⁷⁾

우리는 중국 동포의 모어 사용의 일단락 역사에서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언어 사용 인구의 변화가 하나의 추향(趨向)이라면 언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려는 것 역시 하나의 추향이다. 각종 언어는 바로 이러한 모순 가운데서 발전한다. 자치 구역과 주변 환경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 중국 동포의 언어—한국어는 계속 생존이 이어질 것이다. 동포 사회의 발전 과정에 생겨난 문제점들을 너무 과장할 필요도 없거니와 너무 등한시하여도 안 될 것이다.

민족어를 사랑하며 거래의 얼을 간직한 모든 이들은 우리말의 전도에 대하여 비관자가 되지 말아야 하며 새천년에 우리 어문의 지위를 다지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수시로 마련하여야 한다.

7) 『문화산맥(2)』,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7년.

김광세, 왕동양. 「보통 중, 소학교 상황 및 인구 발전 전략」, 『연변일보』 1999년 11월 6일 제3면.